

‘영아기 부모교육, 경기교육에서 해답 찾는다’

학교 구성원이 직접 교내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 이끌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과 체계적 조기 지원을 위해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을 운영한다.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 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갈등 사안을 조정, 중재하는 학교 내 조직이다. 외부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화해중재단과는 달리 학교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

회복을 이끄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교육청은 ‘마음공유 화해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단계) 준비학교 ▲(2단계) 실천학교 ▲(3단계) 화해학교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했다.

1단계 마음공유 준비학교는 학교 내 화해중재단 운영을 준비하는 학교이다. 초·중·고 희망교를 대상으로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운영한다.

이후 도교육청은 준비학교를 대상으로 2단계 실천학교 200교를 선정해 2026학년도 1년간 운영하며 실천학교와 더불어 2026 화해중재 연구학교를 초 3교, 중 2교, 고 1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천학교 중 우수 운영교 50교를 선정해 3단계 마음공유 화해학교를 2027학년도에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화해학교는 현판 수여와 향후 우수교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화해중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화해중재 실행 연수 ▲화해중재 매뉴얼 및 도움 자료 배포 ▲학교 자체 연수 ▲교내 교원 학습동아리 등을 지원한다.

송민수 기자

남양주시, 제2회 추경 3,602억 원 증액 편성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02억원을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78% 늘어난 2조 7,973억원으로, 국가 추경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는 2,328억원 증가한 2조 4,002억원, 특별회계는 1,274억원 늘어난 3,971억원이다.

가장 큰 비중은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 총 1,331억원이 투입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204억원, △남양주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6억원 등을 반영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원이 반영됐다. △진접선·별내선 철도운영에 89억 원, △광역 및 시내버스 지원에 51억원이 편성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서는 △수

소도시 조성(50억원) △화도읍 도시재생 및 근린공원 조성(46억원) 등 총 175억원이 배정됐다. 도시 안전망 강화 예산으로는 △사전대비 재해예방 사업(40억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31억원) 등 92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산동 인공암벽장 및 체육시설 조성(72억원),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70억원) 등 246억원이 투입된다. 복지 부문에는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146억원), △영양유아 보육료 지원(22억원) 등 총 320억 원이 반영됐다.

주광덕 시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통인프라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초월지구 풍수해 종합 정비 본격 추진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6년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공모에 초월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재해 위험 요인을 종합 분석해 지역단위로 일괄 정비하는 행정안전부의 중점 사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비 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시행해 근본적인 재해 위험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초월읍 학동리·쌍동리·용수리 일대를 대상으로 풍수해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으며 지난 4월 1·2차 서류심사와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75%에 해당하는 국·도

비 32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시는 오는 2026년부터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5년간 총 433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학동천 등 지방하천과 선동천·하오개천·쌍동1리천 등 소하천 종합 정비(총계 3.2km, 교량 개개설 17개소) ▲펍프장 2개소 설치 ▲산사태 취약지역 2개소 정비 ▲재난 예·경보시설 3개소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방재환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해 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후변화로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수원서 전통놀이 경기 윷놀이 한마당

경기도민이 함께 즐기는 전통놀이 축제 오는 13~14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공동 주관한다고 11일 밝혔다.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이틀간 경기도민들과 함께한다.

오는 13일(토요일)은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팀과 민통선 마을팀이 참가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제5회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가

열린다.

14일(일요일)은 경기도민이면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축제 윷놀이 경기가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들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된다.

윷놀이를 필두로 하는 경기도의 전통놀이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열리며 누구나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 ‘IFA 2025’서 수출상담 1억3,500만 달러 성과

도내 기업 18개사, AI 스마트가전·홈케어 제품 등 바이어 관심 집중

수출상담 235건, 1억3,500만 달러...계약추진 157건, 4,900만 달러 성과 기대

경기도는 지난 9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에 도내 중소기업이 참가한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해 총 235건, 1억3,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IFA’는 미국 CES, 스페인 MWC와 함께 세계 3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로 꼽히며, 유럽 최대 규모의 소비자 기술 박람회다. 올해는 ‘AI’를 핵심 주제로 콘텐츠 제작, 오디오, 게이밍, 디지털 웰스,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총망라했다.

전시회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이 중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글로벌 마켓판 내에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했다. 도는 부스 임차, 전시물 운송, 통역 인력 제공 등 참가 기업의 전시 준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도내 참가기업 18개사는 AI 기반 스마트가전, 홈케어 제품, AI 솔루션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들과 활발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가전과 관련 솔루션 분야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전시 기간 동안 총 235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중 157건, 4,900만 달러 규모는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이번 상담 성과가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시회 종료 이후에도 계약 연계 컨

설팔, 후속 마케팅, 현지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등 사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IFA는 유럽 ICT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전시회로, 도내 기업에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평택시 전통문화 축제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개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생생 국가유산 사업인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 행사가 오는 27일(토) 평택시 팽성읍 객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본 축제는 주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려 지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체험하는 참여형 문화유산 축제로, 올해로 11년 차를 맞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130여 년 만에 부활한 전통 의례 망궐례 재현

‘임금님 만나러 가는 길’은 본래 평택현의 현감이 한양 임금을 향해 예를 올리던 전통 의례 망궐례(望闕禮)를 되살린 행사다. 130여 년 전 외부 요인으로 중단되었던 의례가 주민들의 손으로 복원되며, 이제는 평택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축제에서 주민과 외국인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주체적 참여자로 행사에 동참하며, 지역 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기회가 될 것이다.

■ 현감 행렬과 격쟁 연극, 거리에 서 만나는 전통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현감 행렬이다. 팽성을 행정직센터에서 출발한 행렬은 총 1.8km 구간을 이동하며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다.



행렬 도중에는 전통 연극 격쟁이 펼쳐진다. 격쟁은 임금님 행차 시 백성들이 뺨과리를 치며 역울함을 호소하던 전통 민속극으로, 이번 공연은 전문 연출가와 지역 예술단체 주민 단원들의 참여로 재현된다. 또한 지역 인사와 주민 대표들이 함께 공연에 참여해 공동체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객사에 도착한 후에는 본래 의례인 망궐례가 진행되어 관람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장엄한 순간을 선사한다.

■ 주민이 만드는 참여형 프로그램

올해 축제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

와 ‘체험’이다. 주민들이 직접 전통 복식을 손바느질로 제작하는 ‘바느질 부대’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참여형 사례다.

참가자들은 완성한 복식을 입고 행렬에 참여하고, 무대에 올라 ‘뽕내기 패션쇼’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외에도 주민자치 노래교실, 난타, 풍물놀이, 태극취타대 공연, 전통무용과 민속놀이, 새활용(업사이클링)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송민수 기자

국토부·LH, 대체부지 재검토 추진

계획했지만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화성시와 전 의원 등은 그동안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기존 부지 계획의 부당성과 대체방안 마련 등을 국토부와 LH 등에 요구해 왔다.

전 의원은 “이번 철회 결정은 주민들과 함께 이뤄 낸 값진 성과다. 주민 피해를 막아낸 만큼 이제는 반월동 부지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화성시도 국토부의 열병합발전소 현 부지 설치계획 철회와 대체부지 재검토 결정에 대해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중심 행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화성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주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가남읍 '똑버스' 10월 운행

여주시는 지역 내 대중교통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 중인 가운데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가남읍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똑버스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비효율적인 시내버스 노선을 통·폐합하고 똑버스를 대체교통수단으로 투입, 노선 개편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똑버스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기존의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실시간 최적 경로를 생성해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가남읍에는 오는 10월1일부터 똑버스 5대가 신규로 도입되며, 운행차량은 기존 솔라터(12인승) 대신 스타리아(7인승)를 투입한다. 이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회관 등 기존 시내버스가 닿지 못했던 교통 소외지역까지 세밀하게 대중교통으로 연결하기 위함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이며, 호출 마감시간은 밤 11시30분이다.

파주시, '야간 시간대 아이

긴급돌봄' 시범 사업 운영

파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간 '야간 시간대 아이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공백이 가장 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야간돌봄 할당요금(기본요금의 50%) 지원 ▲야간특화 아이돌보미 긴급돌봄수당 지원 ▲긴급 상황 시 첫 이용 가정은 소득판정 전이라도 즉시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 가입·신청 및 연계·이용 방식에서 후 소득판정 및 환급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야간 긴급돌봄지원을 이용하는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야간 할당요금(기본요금의 50%)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기본 요금만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시는 시범 기간 운영 후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제도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시, 생활 속 맨발길 조성

확대 시민 건강 걷기환경 강화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최근 새로 조성한 맨발길 4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시설 상태와 안전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리·보완 방향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시민 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맨발길을 걸으며 시설과 편의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개선 의견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양산근린공원(양산동 맨발길, 100m) ▲외삼미근린공원(외삼미동 맨발길, 130m) ▲윤암제1근린공원(오산동 맨발길, 100m) ▲고현어린이공원(고현동 맨발길, 100m) 등 4곳이다. 이들 구간은 노후 산책로와 녹지 공간을 정비해 황토길을 만들고, 세족장·신발보관함·황토축탕 등 편의시설을 더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시는 이번 점검과 함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8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 추경예산을 추가해 내년까지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시는 맨발길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시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 공간으로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조성된 맨발길 3개소에 경관조명과 배수로 정비 등 보완 사업을 병행해 안전한 걷기 환경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은 9개로, 내년까지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시는 맨발길을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시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생활 공간으로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걷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